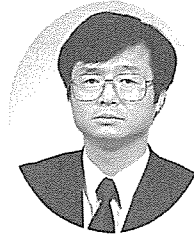


# UR과 국내유가공산업



박 상 도

(한국유가공협회 업무부과장)

## 1. 머리말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은 95년부터 거의 모든 주요 유제품이 개방되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일대 전환기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동안 90년초 부터 유가공품은 제한적이거나 단계적으로 꾸준히 개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자유화 품목은 국내 유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일부제품, 특히 분유가 함유된 코코아 조제품, 기타조제식료품, 버터조제품등은 수입량 자체로는 많은 양으로 상당한 물량이 우유로 대체되는 피해를 가져왔지만 국내우유수급의 불안정과 유제품의 소비규모 확대로 문제시 될만큼 관심을 끌지못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5년 부터는 치즈 분유류(전지 탈지 조제분유) 유장분말 우유함유제품 등 호환성이 큰 유가공품들이 본격적으로 수입이 될경우 국내유가공산업과 낙농산업에 미치는 연쇄적 파급효과는 우려할 수준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가격, 품질,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뒤질 경우 유가공산업의 위치가 흔들리게돼 연쇄적으로 낙농산업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앞으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유가공업계의 현실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2. 유가공산업의 현황

### 가. 유가공산업체현황

1962년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처음 제정공포되고 정부가 낙농진흥정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유가공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참여가 많았으나 그후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시설규모의 대형화는 물론 품목이 다양화되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국내유가공업체수는 민간업체가 26개사 40개의 공장을 가지고 전체 우유생산량의 77%를 처리하고 조합계통은 13개 업체로 17개공장에서 33%를 처리하고 있다.<표1> 또한 우리나라 전체 유가공장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국내산 원유의 이용상황

국내원유의 이용은 유가공기술의 향상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초기에는 백색시유만으로

〈표1〉 유가공업체 현황

구분 주체별	업 체 수	공 장 수	국내산 원유처리	
			물량:톤	비율:%
민 간	26개	40개	1,258,073	67.7
협동조합	13	17	599,800	32.3
계	39	57	1,857,873	100

주: 국내산 원유처리는 '93년 실적기준임

출발하여 이제는 가공, 강화 기능성우유를 생산하게 되었고 유아용조제분유, 무당 가당연유, 전지, 탈지분유 아이스크림 액상 농후발효유 치즈에 이르기 까지 품목이 다양화되었다. 품질 또한 고급화 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수요면에서도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짧은 기간에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가공 산업은 이러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원유 생산량의 73%가 음용유(시유)에 이용되고 나머지 27%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낙농선진국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나마, 전체우유소비는 성수기와 비수기 그

리고 학교급식 기간등으로 우유의 과부족이 뚜렷한 소비구조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표3〉 특히 학교우유 급식은 전체 우유 생산량의 약 8%로서 비수기와 방학기간의 잉여원유는 분유로 생산하여 성수기에 소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표4〉

다. 유가공산업의 산업적 위치

1960년대 정부가 낙농진흥정책을 수립 적극 추진 하면서 낙농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유가공산업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했다. 1970년대 중반 5백여 억원에 불과하던 생산액이 시장확대와 생산여건의 개선으로 1991년도에는 2조 2천억원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하였다. 이에따라 60년대의 제빵, 제과 조미료, 장류중심 의 식품산업이 이제는 유가공, 제과 제빵 제면등으로 비중이 바뀌었으며 식료품 산업부분에서 18.7%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산업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표5〉

〈표2〉 유가공장 지역별 분포상황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	12	7	3	9	4	5	6	6	2	57

주: 직할시의 공장은 인접도에 포함됨

〈표3〉 년도별 국내산 원유 이용 상황

년 도	납 유 량	음용유(시유)		가 공	
		물량:톤	점유비:%	물량:톤	점유비:%
88	1,631,896	1,263,183	77.4	368,713	22.6
89	1,761,796	1,185,830	67.3	575,966	32.7
90	1,751,758	1,305,825	74.5	445,933	25.5
91	1,740,995	1,303,718	74.9	437,277	25.1
92	1,816,121	1,356,853	74.7	459,268	25.3
93	1,857,873	1,368,233	73.6	489,640	26.4

자료: '94 낙농관계자료(농림수산부)

라. 유제품 개방현황

90년대부터 액상 요구르트 92년 응고유와 응고크림 93년도 밀크와 크림, 따로분류되지 않는 우유 함유제품 94년도 발효유, 커어드 등이 이미 개방이 되었지만 이러한 제품은 국내유통문제 호환성 제한적 용도 등으로 수입이 미진하였고 또한 유가공산업에 미치는 피

해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 부터 본격적인 개방이 되는 제품은 유통문제나 호환성, 품질, 가격경쟁에서 국내산 보다 우위를 점하는 제품으로 그에 따른 피해는 이미 예상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또한 피해의 여파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표4> 학교우유 급식현황

구 분	89년도	90	91	92	93
일 평균 급식량	4,318천개	4,231	3,498	3,568	3,476
우유 환산량/일	890톤	872	721	735	716
우유 환산량/년	178,000톤	174,400	144,200	147,000	143,200
집유량대비%	10.1	10.0	8.3	8.1	7.7
집 유 량	1,761,796	1,751,758	1,740,995	1,816,121	1,857,873

- 주 : 1. 원유 환산은 200ml기준하여 SG:1.030을 적용
- 2. 연간 우유 환산량은 우유급식기간 200일/년 기준함

<표5>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추이

(단위: 억원, %)

부 문 별	1966		1975		1985		1991	
제 조 업	4,174		81,700		770,329		2,056,990	
음 · 식 료 품	646		10,407		65,940		149,864	
식료품	381	100.0	7,293	100.0	52,259	100.0	119,240	100.0
육가공	7	1.8	119	1.6	2,580	4.9	11,675	9.8
유 가 공	0	0.0	516	7.1	8,291	15.9	22,253	18.7
수산가공	32	8.4	599	8.2	6,077	11.6	15,939	13.4
과채가공	3	0.8	170	2.3	1,319	2.5	7,221	6.1
곡물가공	119	31.3	1,763	24.2	4,691	9.0	9,471	7.9
식용유지	0	0.0	348	4.8	5,068	9.7	6,314	5.3
빵, 과자, 국수	45	11.7	1,798	24.7	12,519	24.0	22,986	19.3
식품첨가물	43	11.3	445	6.1	3,689	7.1	8,548	7.2
기타식료품	132	35.0	1,535	21.0	8,024	15.0	14,833	12.4
음료품	266	100.0	3,114	100.0	13,680	100.0	30,624	100.0
알콜성	255	96.0	2,698	86.6	9,375	68.5	17,584	57.4
비알콜성	11	4.0	416	13.4	4,306	31.5	13,040	41.6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표6〉 유제품 수입개방 일정

품목	자유화 연도	관세			수입쿼타(MMA, CMA)	
		현행	95년도	2004년도	95년도	2004년도
치즈	'95.1.1	40%	40	36	—	—
조제분유	'95.1.1	40	40	36	—	—
우유함유조제품	'95.1.1	40	40	36	—	—
유장분말	'95.1.1	20	99	49.5	23,000 톤	54,233
탈지분유	'95	20	220	176	621	1,034
전지분유	'95	40	220	176	344	573
버터	'96	40	99	89	250	420
유당	'96	20	99	49.5	5,640	9,400
연유	'96	40	99	89	78	130

주: 시유, 크림, 발효유, 응고유와 응고크림, 커어드, 카제인등 여타유제품은 94. 1. 1이전에 이미 수입개방됨

〈표7〉 각국의 원유 수취가격

국별	연도	해당국의 화폐단위/100kg			원화로 환산/kg	
		1990	1991	1992	1991	1992
벨기에		1,100.0	1,050.0	1,080	225	243
덴마크		268.0	262.0	245	299	297
서독		63.2	59.9	60.6	264	280
스페인		3,850.0	3,600.0	3,680	252	277
프랑스		185.4	181.3	185.9	235	255
에이레		19.2	18.1	19.9	214	246
이탈리아		59,893.0	59,750.0	59,936	353	367
네덜란드		65.7	67.5	68.3	264	280
영국		17.8	18.2	19.1	236	238
(구) 동독			49.6	53.4	219	247
유럽공동체 평균					260	278
스웨덴		297.4	287.5	296.7	347	390
핀란드		258.6	265.3	262	480	424
스위스		103.3	103.7	103.5	531	546
오지리		545.0	553.0	570	346	375
미국		30.0	27.0	28.9	214	209
캐나다		47.5	48.0	49.0	334	296
일본		8,910.0	8,950.0	8,890.0	511	507
뉴질랜드		17.7	24.9	29.2	114	115
호주		26.2	28.6	31.0	174	169
한국		36,400	38,300	38,300	383	383

\* 433('93년)

자료: ADC('93)

주: 한국 유지방 3.4%기준 \* 유지방 3.4% 1등급기준

〈표8〉 주요 유제품 가격경쟁비교

제 품 명	한국 : A	국 내 도 착 가 격				B/A(%)
		CIF	관 세	제 비 용	계 : B	
탈 지 분 유	5,700원/kg	1,134	2,495 (1,996)	90	3,719 (3,220)	65.2 (56.5)
전 지 분 유	5,100/kg	1,255	2,761 (2,209)	100	4,116 (3,564)	80.7 (69.9)
자 연 치 즈	5,820/kg	1,790	716	143	2,649	45.5
조 제 분 유	2,900/관당	1,372	549	110	2,031	70

- 주: 1. 수입가격은 94년 수입추천 평균가격임  
 (탈지분유: 1.4불/kg, 전지분유: 1.55불, 자연치즈: 2.21불)  
 2. 환율: 810원/\$ 제비용: 8% 적용  
 3. ( )내는 관세 176% 적용임  
 4. 조제분유 비교는 한국은 대표적 시판조제분유 평균가격  
 일본: (일본수출평균단가 174엔/400g + 운반비 4.24엔) × 7.7원/엔 × 1.48(관세)

마. 원유 및 유제품의 가격경쟁

개방화 시대에는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낙농선진국에서의 국내 시장잠식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원유의 수취가격은 낙농선진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한다.〈표7〉 물론 국내낙농산업여건의 악화로 인건비 상승, 지대상승, 각종 생산비 증가로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원료우유에서 부터 가격경쟁이 열세에 있으면 가공제품도 가격경쟁의 열세로 인하여 외국산 제품의 시장잠식의 빌미로 제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표8〉

하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제품등이 각종 자료를 검토해보아도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고의 과잉부분을 해소하려면 시유 부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낙농선진국의 멸균유 유통기한은 일본이 2개월 미국 EU등에서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유통기한은 6주로 외국의 유통기한보다 짧은것은 사실이다. 낙농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고 향후 개방압력으로 유통기한 연장을 요구해올 것도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한다.

가. 치즈류

3. 수입개방시 국내 유제품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시유의 비중이 높아 시유부분이 73% 가공부분이 27%로서 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95년 부터는 가공용 27% 부분에서 대표적인 유가공품인 치즈와 발효유 그리고 조제분유와 그리고 실수요업체용과 잉여되는 원유의 수급조절기능을

유제품의 꽃이라고 불리는 치즈류는 앞으로 소비시장규모가 가장 큰제품이며 또한 시장잠식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연치즈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에따른 자연치즈의 설비 유희화와 그에 따른 고용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가공치즈도 최소한의 시장을 지키기위하여 외

국산제품과의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이 불가피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된다.

나. 조제분유

유아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외제 선호 경향이 강해 동남아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일본제품이 유입될 경우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은 현재 자국내 조제분유의 수입원자재에 대해서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수입하기때문에 가격경쟁에서는 국내산 제품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원유가격이 낮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OEM(주문자상표) 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시장에 침투할 경우 시장잠식이 크게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전지, 탈지분유

220%의 고율관세로 수입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시세가 워낙 가격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수입대체가 예상

되며 특히 실수요부분에서 관세가 40%인 우유함유조제품으로 대체 사용이 예상된다. 또한 계절적으로 원유수급불균형으로 남는 원유를 처리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므로 국내산과 외국산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손실을 보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며 따라서 국내산 원유의 재고 기피현상이 예상돼 잔여원유처리가 문제화 될 것이 예상된다.<표9>

4. 대책방안

정부가 UR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서는 가공산업도 포함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못해 안타깝다. 이제는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긴밀히 상호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할때라고 본다. 그러한 측면볼때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9> 년도별 분유생산 현황

구 분	89년	90	91	92	93
전 지 분 유 (수 입 량)	15,816 톤	8,551	4,137 (4,100)	3,988 (799)	2,571 (2,000)
탈 지 분 유 (수 입 량) (수 입 계)	18,763 톤	12,261	10,514 (13,000) <17,100>	10,339 (6,171) <6,970>	10,918 (11,971) <13,971>
분 유 계 (수입포함)	34,579 톤	20,812	14,651 (31,751)	14,327 (21,297)	13,489 (27,460)
원 유 환 산 량 (수 입 포 함)	345,790 톤	208,120	146,510 (317,510)	143,270 (212,970)	134,890 (274,600)
집유량대비구성비 (수입포함)	19.6%	11.9	8.4 (18.2)	7.9 (11.7)	7.3 (14.8)
집 유 량	1,762 천톤	1,752	1,741	1,816	1,858

주:분유의 원유환산 지수는:10

- 관세등 경쟁력 취약부분에 대한 보완지원이 있어야 한다. C/S상 외국에 비하여 불리한 관세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개방시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치즈 부분과 시장 잠식이 예상되는 조제분유의 원료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 해야만 가격경쟁을 확보할수가 있다. 특히 생산에 필요한 원료부분(원료용 자연치즈, 유장분말, 유당, 카제인, 전지, 탈지분유, 버터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적용이 있어야 할것이며 국내산 가공치즈의 부가가치세도 면세를 하여야만 외국산과 가격경쟁을 할수가 있다.
- 정부가 제시한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물량과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개방시 피해가 예상되는 유가공업체에 우선 배정하여 최소한의 가격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수입대체가 급속히 이루어질 가공제품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차액에 대한 보상책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국내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규모를 최대한 유지하여 우유 수급상 비수기와 특수한 거래관계(학교 급식등)로 발생하는 잉여 원유처리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분유(전지, 탈지), 자연치즈, 버터등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유대차등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즉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세균, 체세포에 따른 유대차등체계를 계절별,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제로 보완하여 국내산 원유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외국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유가공공장의 자동화, 성력화 그리고 시설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유가공업체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생산자와 가공업체간의 역할분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검사의 공정성 확보와 집유제도의 개선 및 제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낙농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생산자와 가공업체 공동으로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공동홍보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우유의 국내소비확대를 도모해야하며 유통구조개선에도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공동노력하므로써 그동안 생산자와 가공업체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상호간의 일체감을 조성해야 한다.

## 5. 결 론

그동안 UR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단체 학계 등에서 많은 대책과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제는 그러한 대책과 대안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단계이다.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전망은 어둡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가공산업도 낙농선진국에 뒤지지 않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것이며 낙농가, 유업체 그리고 정부와 소비자가 서로 합심하여 대내외적인 도전에 적극 대응한다면 수입개방시 국내유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